

척추수술 환자와 간호사가 인지하는 간호요구도 비교

김 은 경¹⁾ · 엄 미 란²⁾ · 정 지 영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료 인력의 배출 증가와 더불어 의료 기관의 수적 증가, 대형 종합병원의 설립으로 인한 의료공급의 과잉 현상, 의료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기대 상승은 의료기관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Lim, 2002).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서 의료 기관은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객만족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환자중심의 병원경영 관리체제를 갖추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에서 고객 평가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간호서비스의 중요성과 위치도 주목받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의료 소비자와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 간호사이고, 소비자가 인지하는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간호사이며, 의료기관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역시 간호사이기 때문이다(Atkin, Mashall, & Javalgi, 1996).

오늘날 간호의 궁극적인 목표는 질병치료 보조 중심의 기계적인 간호에서 벗어나 환자 개개인의 건강관리에 기초를 둔 인간중심의 전인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데 있다. 환자는 입원기간에도 요구의 양상과 그 요구의 충족을 바라는 우선순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간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Park, Moon, Choi, Lee, & Chung, 1994). 그러나 인간의 요구는 복합적이어서 같

은 진단의 환자라 할지라도 각각의 요구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간호요구의 사정은 질적인 간호를 위해서 대상자가 인지하는 요구와 간호사가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구를 포함하며, 간호사와 환자의 인식된 요구가 일치될 때 보다 만족스러운 요구충족이 일어난다(Kwon & Eun, 1998). 요구의 사정은 간호의 주요 관심사이며 질적 간호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이다(Blank, Clark, Longman, & Atwood, 1989). 다시 말해 소비자인 환자가 어떤 간호요구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간호요구에 대해 간호사와 환자 간에 어느 정도의 인식차이가 있는지를 앞으로써 보다 환자 중심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이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Kim & Won, 2004).

특히,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게 된 경우에는 수술의 대소를 막론하고 수술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불안 즉,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것, 불구의 가능성, 무엇이 일어날지 전혀 예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 이 외에도 자신이 머무르게 되는 환경, 대인관계 등과 관련된 불안을 가지게 된다(Choi, 2000). 또 직접적 수술과정 이 외에도 활동 등의 제한, 가족과의 격리, 경제적인 부담, 직업상의 문제 또는 신체기능의 저하, 수술 후의 후유증에도 정신적인 부담을 가지게 된다(Kang, 1998). 수술환자의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결과에서도 환자들은 자신의 질환과 수술, 수술 전·후의 과정, 수술 후 회복 등에 대한 신체적, 진단 및 치료적, 정서적, 교육적 요구가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났다(Nam, 2000).

주요어 : 간호사, 환자, 요구, 척추, 수술

1)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

2)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교신저자 E-mail: miran@eulji.ac.kr)

3) 을지대학병원 간호사

투고일: 2007년 11월 12일 심사완료일: 2008년 2월 19일

우리나라 수술 환자는 전체 입원 환자의 22.3%에 해당하며, 건강문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입원환자수의 증가와 함께 수술을 받는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Park et al., 1994).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80% 정도가 요통을 경험하고 있고 최근 들어, 척추수술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서(2003)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척추수술 증가율은 83%로 미국의 증가율보다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2002년 이후 척추수술 건수는 특별한 기복 없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ang & Suh, 2006). 수술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외과적으로 해결하여 치료하지만 수술의 효과 및 수술 후 동통과 불편에 대한 걱정, 직업상실에 대한 염려, 신체의 일부 손상에 대한 정서적 불안감 등을 가지게 하므로 간호사는 수술 전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거나 예방하여 수술을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지하는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Hong, 2000).

수술환자들의 문제는 간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게 되므로 간호사는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간호의 요구가 무엇인지 발견하여 간호계획을 세우며 간호활동을 하고 평가하여 더욱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환자가 다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의 간호요구도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과 간호사가 인지하고 있는 요구도와의 격차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간호요구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환자나 그 가족의 입장만을 조사하거나(Seo, 2000; Kim, 2002; Jung, 2003; Lee & Lee, 2003; Jeon & Park, 2007), 암환자(Kwon & Eun, 1998; Lee & Lee, 2003), 뇌졸중환자(Kim, 2002), 회복실 환자(Kim et al., 2002), 회복실 간호사(Lee, 2005), 골수이식 환자(Choi, 2000), 정형외과 환자(Jung, 2003) 및 관상동맥질환자(Jeon & Park, 2007)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다. 그 중 수술환자와 간호사가 인지하는 간호요구도 차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고, 특히 척추수술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Lim(2002)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척추수술환자는 요통이나 마비, 감각소실 등 손상을 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질병의 대상자와는 다른 간호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술환자 중 특히, 척추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와 그들을 돌보는 간호사가 인지하는 간호서비스 내용의 요구도를 수술 전, 수술 후, 퇴원 시로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환자가 중요시하는 간호요구 항목에 대해 간호사와의 인식 차이를 줄임으로써 환자의 요구에 적합한 간호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간호의 질적 향상과 간호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환자와 간호사가 입원시기별(수술 전, 수술 후, 퇴원 시)로 인지하는 간호요구도의 변화와 간호요구도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환자의 요구에 적합한 질적 간호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척추수술 환자와 간호사가 인지하는 수술 전 간호요구도를 비교한다.
- 척추수술 환자와 간호사가 인지하는 수술 후 간호요구도를 비교한다.
- 척추수술 환자와 간호사가 인지하는 퇴원 시 간호요구도를 비교한다.

용어의 정의

- 척추수술환자 : 본 연구에서는 후궁절제술(Lumbar laminectomy)이나 요추체후방융합(Posterior Lumbar interbody fusion), 현미경을 이용한 추간판절제(Microscopic disectomy)를 실시한 환자를 말한다.
- 환자의 간호요구도 : 척추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가 입원기간동안 간호사로부터 받기 원하는 간호요구의 정도로 본 연구의 질문지를 이용해 측정된 값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간호사의 간호요구도 : 척추수술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로서 환자가 간호 받기 원한다고 인지하는 간호요구의 정도로 환자와 동일한 질문지를 이용해 측정된 값을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3개 병원의 척추수술 환자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모든 대상자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척추 수술 전, 수술 후, 퇴원 시의 시기별 간호서비스에 대하여 척추수술 환자와 이들을 간호하는 병동 간호사가 인지하는 간호요구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비교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3개 종합병원의 척추센터를 통해 2006년 9월 18일에서 11월 17일까지 입원하여 척추수술을 받은 18세 이상 성인 환자 71명과 상기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척추수술 환자를 간호하는 병동간호사 63명이었다.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수술 환자들의 간호요구도를 측정하기 위해 Choi(2000)가 개발한 구조화된 설문지와 Seo(2000)와 Lim(2002)의 도구를 참조하고,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자가 척추수술 환자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는 조사시점에 따라 수술 전, 수술 후, 퇴원 시 간호요구도로 개발되었다. 일차 개발한 설문지는 척추수술 환자의 1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문항의 이해정도를 파악하고, 개방 질문을 통해 포함이 필요한 간호요구 문항 등을 보완하였다. 설문지는 정형외과 수간호사 1인과 척추센터 근무경력 5년 이상의 경력 간호사 2인, 간호학 교수 3인에게 문항 내용 및 구성의 적절성을 평가받아 최종 완성하였다.

환자와 간호사가 인지한 간호요구도는 입원시점에 따라 척추 수술 전 간호요구 총 25문항(교육적 요구문항 5문항, 치료·중재적 요구 7문항, 신체적 요구 6문항, 사회·심리적 요구 7문항), 수술 후 간호요구 28문항(교육적 요구 5문항, 치료·중재적 요구 8문항, 신체적 요구 9문항, 사회·심리적 요구 6문항), 퇴원 시 간호요구 9문항(교육적 요구 3문항, 치료·중재적 요구 2문항, 신체적 요구 2문항, 사회·심리적 요구 2문항)으로 각 문항 당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 도구의 신뢰도는 수술 전 간호요구도 cronbach's $\alpha = .937$, 수술 후 간호요구도 cronbach's $\alpha = .889$, 퇴원 시 간호요구도 cronbach's $\alpha = .891$ 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연구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 받고 연구참여에 동의하였으며, 설문내용을 이해하고 직접 기입할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3개 종합병원의 척추센터에서 척추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수술 후, 퇴원시의 세 시기별로 나누어 각각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수술 전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술 하루 전이나 수술당일을 의미한다. 수술 후는 수술을 실시한 2~3일 후를 의미하며, 이는 대상자가 전신마취 혹은 척추마취를 하는 환

자이므로 마취에서의 회복시기를 1~2일(Yoon, Kim, Choi, & Ihn, 1991), 또는 2~3일(Collins, 1991)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퇴원 시는 퇴원 당일을 의미한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Window 1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환자의 간호요구도와 간호사가 인지한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적, 치료·중재적, 신체적, 사회·심리적 영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환자와 간호사가 인지한 간호요구도에 대한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환자의 특성

대상자 중 환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 분포는 여자가 54.9%, 남자가 45.1%이었고, 연령은 40-59세가 42.3%, 60세 이상이 38.0%, 39세 이하가 19.7%의 분포를 보였다. 교육정도는 고졸 3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초등졸 21.1%, 대졸 이상이 18.3%, 중졸 15.5%의 순이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66.2%, 결혼 상태는 기혼이 78.9%로 가장 많았다. 직업이 없는 경우(주부포함)는 57.7%로 직업이 있는 경우 42.3%보다 많았다. 경제 상태는 월평균 총 수입 100만원 미만이 40.8%로 가장 많았고, 100-200만원 미만이 32.4%, 200-300만원 미만이 14.1%, 300만원 이상이 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67.6%는 현재의 질병으로 입원한 경험이 없었고, 84.5%는 현재의 질병으로 수술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질병이 아닌 다른 건강 문제로 입원한 경험이 없는 경우는 53.5%, 현재의 질병이 아닌 문제로 수술한 경험이 없는 경우는 64.8%로 나타났다.

●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간호사의 연령은 24세 이하가 46.0%로 가장 많았고 25-29세가 44.4%, 30세 이상이 9.5%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60.3%, 없는 사람은 39.7%이었고, 결혼 상태는 미혼 87.3%, 기혼이 12.7%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전문대졸 69.8%, 대졸 27.0%, 대학원졸 3.2%의 분포를 보였다. 임상 간호사로서의 근무 경력은 1년 미만 17.5%, 1년 이상-3년 미만 33.3%, 3년 이상-5년 미만 23.8%, 5년 이상이 25.4%를 차지했고, 이 중에서 척추 수술 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N=71)

Characteristics	Categories	Frequency	%
Gender	Male	32	45.1
	Female	39	54.9
Age (year)	< 40	14	19.7
	40-59	30	42.3
	≥ 60	27	38.0
Education level	None	9	12.7
	Elementary school	15	21.1
	Middle school	11	15.5
	High school	23	32.4
	Diploma or higher	13	18.3
Religion	Yes	47	66.2
	No	24	33.8
Marital status	Unmarried	7	9.9
	Married	56	78.9
	Other	8	10.3
Job	Yes	30	42.3
	No	41	57.7
Income (won/month)	< 1,000,000	29	40.8
	< 2,000,000	23	32.4
	< 3,000,000	10	14.1
	≥ 3,000,000	9	12.7
Admission history. related to present illness	Yes	23	32.4
	No	48	67.6
Op. history. related to present illness	Yes	11	15.5
	No	60	84.5
Admission history. related to other diagnosis	Yes	33	46.5
	No	38	53.5
Op. history related to other diagnosis	Yes	25	35.2
	No	46	64.8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es (N=63)

Characteristics	Categories	Frequency	%
Age (year)	< 25	29	46.0
	25~29	28	44.4
	≥ 30	6	9.5
Religion	Yes	38	60.3
	No	25	39.7
Marital status	Unmarried	55	87.3
	Married	8	12.7
Education level	Diploma	44	69.8
	Bachelor	17	27.0
	Master or higher	2	3.2
Clinical experiences (year)	< 1	11	17.5
	< 3	21	33.3
	< 5	15	23.8
	≥ 5	16	25.4
	Clinical experiences (year): caring for spinal surgery patients	< 1	16
< 3		26	41.3
< 5		13	20.6
≥ 5		8	12.7
History of operation.		Yes	13
	No	50	79.4
History of surgery for family member	Yes	28	44.4
	No	35	55.6

자를 간호한 임상 경력은 1년 미만 25.4%, 1년 이상-3년 미만 41.3%, 3년 이상-5년 미만 20.6%, 5년 이상 12.7%로 나타났다. 대상 간호사들 중에서 본인이 직접 수술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20.6%, 수술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간호사는 79.4%이었으며, 수술한 가족의 보호자였던 경험이 있는 간호사는 44.4%, 보호자 경험이 없는 간호사는 55.6%로 나타났다.

척추수술 전 환자 및 간호사가 인지한 간호요구도 비교

척추수술 전 환자 및 간호사가 인지한 영역별 간호요구도를 비교한 결과, 척추수술 전 간호영역에 대해서 환자가 인지한 간호요구도는 총 평균평점 4.05점으로 나타났고, 간호사가 인지한 간호요구도는 총 평균평점 4.25점으로 수술 전 간호요구도에서 환자와 간호사의 인식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2.515, p=.013$). 영역별 요구도 차이를 보면, 교육적 영역에서 간호사(4.59)가 인지한 간호요구도가 환자(4.35)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914, p=.004$). 또한 치료·중재적 영역에서도 간호사(4.38)가 환자(4.1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841, p=.005$). 신체적 영역과 사회·심리적 영역은 환자와 간호사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영역별로 수술 전 간호요구도 순위를 살펴보면, 환자는 교육적 영역, 신체적 영역, 치료·중재적 영역, 사회·심리적 영역의 순이었고, 간호사는 교육적 영역, 치료·중재적 영역, 신체적 영역, 사회·심리적 영역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Table 3>.

척추수술 후 환자 및 간호사가 인지한 간호요구도 비교

척추수술 후 환자 및 간호사가 인지한 영역별 간호요구도를 비교한 결과, 척추수술 후 간호영역에 대해서 환자가 인지한 간호요구도는 총 평균평점 4.31점으로 나타났고, 간호사가 인지한 간호요구도는 총 평균평점 4.3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708, p=.481$). 영역별 요구도를 비교해 보면, 교육적 영역에서 간호사(4.40)가 인지한 간호요구도가 환자(4.29)보다 높게 나타났고, 신체적 영역에서도 간호사(4.27)가 환자(4.16)보다 높았고, 사회·심리적 영역에서도 간호사(4.58)가 환자(4.48)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치료·중재적 영역에서는 환자(4.38)가 간호사(4.35)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모든 간호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영역별 순위를 보면 환자는 사회·심리적 영역, 치료·중재적 영역, 교육적 영역, 신체적 영역 순으로 간호요구도가 높았고,

<Table 3> Comparison of perceived nursing needs between patients and nurses at pre op

Sub-dimensions	Patients (n=71)		Nurses (n=63)	
	Mean ± SD	Mean ± SD	t	p
Educational dimension	4.35 ± 0.50	4.59 ± 0.45	-2.914	.004**
Treatment & intervention dimension	4.13 ± 0.53	4.38 ± 0.47	-2.841	.005**
Physical dimension	4.14 ± 0.50	4.27 ± 0.54	-1.429	.155
Psychosocial dimension	3.66 ± 0.57	3.82 ± 0.57	-1.621	.107
Total	4.05 ± 0.45	4.25 ± 0.45	-2.515	.013*

*p< .05, **p< .01

<Table 4> Comparison of perceived nursing needs between patients and nurse at post-op

Sub-dimensions	Patients (n=71)		Nurses (n=63)	
	Mean ± SD	Mean ± SD	t	p
Educational dimension	4.29 ± 0.65	4.40 ± 0.51	-.915	.362
Treatment & intervention dimension	4.38 ± 0.91	4.35 ± 0.50	-.258	.797
Physical dimension	4.16 ± 0.51	4.27 ± 0.64	-.953	.343
Psychosocial dimension	4.48 ± 0.47	4.58 ± 0.40	-1.187	.238
Total	4.31 ± 0.50	4.38 ± 0.45	-.708	.481

간호사는 사회·심리적 영역, 교육적 영역, 치료·중재적 영역, 신체적 영역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퇴원 시 환자 및 간호사가 인지한 간호요구도 비교

퇴원 시 환자 및 간호사가 인지한 영역별 간호요구도를 비교한 결과, 퇴원 시 간호영역에 대해서 환자가 인지한 간호요구도는 총 평균평점 4.34점으로 나타났고, 간호사가 인지한 간호요구도는 총 평균평점 4.3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554, p=.580$). 영역별 요구도를 비교해보면, 교육적 영역에서 간호사(4.48)가 인지한 간호요구도가 환자(4.47)보다 높게 나타났고, 치료·중재적 영역에서도 간호사(4.38)가 환자(4.30)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체적 영역에서도 간호사(4.31)가 환자(4.22)보다 높았고, 사회·심리적 영역에서도 간호사(4.34)가 환자(4.31)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간호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영역별 순위에서는 환자와 간호사 모두 교육적 영역, 치료·중재적 영역, 사회·심리적 영역, 신체적 영역 순으로 간호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5>.

논 의

<Table 5> Comparison of perceived nursing needs between patients and nurse at discharge

Sub-dimensions	Patients (n=71)		Nurses (n=63)	
	Mean ± SD	Mean ± SD	t	p
Educational dimension	4.47 ± 0.47	4.48 ± 0.50	-.087	.931
Treatment & intervention dimension	4.30 ± 0.59	4.38 ± 0.52	-.089	.420
Physical dimension	4.22 ± 0.67	4.31 ± 0.69	-.778	.438
Psychosocial dimension	4.31 ± 0.61	4.34 ± 0.62	-.295	.769
Total	4.34 ± 0.50	4.39 ± 0.48	-.554	.580

환자와 간호사가 인지한 간호요구도는 수술 전, 수술 후, 퇴원 시의 시기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수술 시기별 요구도의 평균을 살펴보면, 환자와 간호사 모두 퇴원 시(환자 4.34, 간호사 4.39), 수술 후(환자 4.31, 간호사 4.38), 수술 전(환자 4.05, 간호사 4.25)의 순으로 간호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시 요구도를 제외한 Choi(1993)의 연구에서 가장 높은 간호요구의 순서는 수술 전, 수술 후, 영적, 그리고 입원 시 요구였다. 이 연구에서는 수술 전이 수술 후보다 간호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형외과의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Jung(2003)의 연구에서는 수술 후, 퇴원 시, 수술 전의 순으로 간호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Choi(1993)와 Jung(2003)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척추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Lim(2002)의 결과와 일치하여 가장 간호요구도가 높은 것은 퇴원 시, 수술 후, 수술 전의 순서였다. 또한 진료과를 구분하지 않고 조사한 Choi(2000)의 연구에서 퇴원 시, 수술 전, 수술 후, 입원 시, 영적 요구의 순으로 퇴원 시의 간호요구도가 가장 높았던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처럼 일반적인 위암 수술 또는 정형외과수술 환자보다 척추수술 환자의 퇴원 시 간호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신체의 기둥이자 중심인 척추의 중요함을 대상자들이 인식하고 있으므로 척추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마비 등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추후관리를 위한 퇴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시기별 간호요구도가 선행 연구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서로 상이한 도구와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수술 후 퇴원이 예정된 환자나 퇴원 후 외래를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이라 생각되는데, 이는 수술 시기별 간호요구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질병에 적합한 수술 시기별 간호요구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각 시기별, 환자와 간호사의 요구도 총 평균을 비교한 결과, 간호사가 인지한 간호요구도가 환자가 인지한 간호요구도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수술 전 간호요구도는 환자(4.05)와 간호사(4.25)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515, p=.013$). 이처럼 수술 전 환자의 간호요구도가 가장 낮은 것은 환자들이 수술이라는 중요사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서 잠재적인 간호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고, 요구가 절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수술 후나 퇴원 시에는 간호문제가 실재하므로 문제마다 요구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간호사가 인지하고 있는 수준과 환자가 인지하는 간호요구도가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척추수술 전 영역별 간호요구도 차이를 보면, 교육적 영역에서 간호사(4.59)가 환자(4.3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4$). 이처럼 간호사가 환자보다 간호요구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한 Jung(1992)의 연구와 특정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Han(1995)의 조기진통 산부의 연구, Kim(2002)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Kim과 Won(2004)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Hong(2000)의 수술 전 교육에 대한 환자와 간호사간의 인식정도 비교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수술 전 교육을 충분히 제공했다고 인지하는 정도(2.69)보다 환자가 제공받았다고 인지하는 정도(2.09)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Koo(2002)의 교육 중요도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는 입원환자가 인지한 환자 교육의 중요도는 높은 수준이었으나 환자가 인지한 간호사의 교육 수행 정도는 낮은 수준이었고, 간호사의 인식은 높은 수준이었으나 수행정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도 있었다. 이는 임상에서 간호사들이 환자 교육의 중요성은 높게 인식하지만 그에 비해 환자들이 체감하는 교육 수행정도는 낮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 교육적 영역에 있어 간호사가 환자보다 더 높은 간호요구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환자 입장에서의 간호 경험과 간호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병행되지 않아 간호사가 인지하는 만큼의 수술 전 간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수술 전 영역별 순위를 살펴보면, 환자는 교육적 영역(4.35), 신체적 영역(4.14), 치료·중재적 영역(4.13), 사회·심리적 영역(3.66)의 순이었고, 간호사는 교육적 영역(4.59), 치료·중재적 영역(4.38), 신체적 영역(4.27), 사회·심리적 영역(3.82) 순으로 간호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당일 수술 환자를 연구한 Choi(1999)와 Shin(1999)의 연구에서와 같이 교육적 영역의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 수술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의 요구가 일반 입원 환자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척추 수술 전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함에 있어 환자의 요구에 맞도록 교육적 영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아울러 간호사의 판단에 중요한 내용인데도 환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간호가 되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척추 수술 후 간호영역에 대해서 환자가 인지한 전반적인 간호요구도는 평균 4.31점, 간호사는 평균 4.38점이었다. 영역별 순위에서 환자는 사회·심리적 영역(4.48), 치료·중재적 영역(4.38), 교육적 영역(4.29), 신체적 영역(4.16) 순이었고, 간호사는 사회·심리적 영역(4.27), 교육적 영역(4.40), 치료·중재적 영역(4.35), 신체적 영역(4.2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척추수술 환자와 이들을 돌보는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환자와 간호사 모두 수술 후 사회·심리적 영역에서의 간호요구도를 가장 높게 나타냈던 Lim(2002)과 Choi(200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반면에 다양한 진료과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회복실에서의 가장 높은 간호요구도 항목은 교육적 요구로 나타났다(Kim et al., 2002). 이 연구 결과와 척추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의 요구도 우선순위가 상이하게 나타난 이유는 진료과명, 즉 수술명에 따라 요구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추후 특정 수술 대상자들의 간호요구도를 각각 연구해봄으로써 더 세분화된 우선순위의 간호요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처를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퇴원 시 간호영역에 대해서 환자가 인지한 전반적인 간호요구도는 평균 4.35점, 간호사는 평균 4.39점으로 환자와 간호사 모두 교육적 영역, 치료·중재적 영역, 사회·심리적 영역, 신체적 영역의 순으로 간호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퇴원시의 교육적 영역이라 함은 주로 퇴원 후 수술부위의 회복 및 재발 예방 등 추후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 퇴원 후 회복 과정 및 상태 변화에 대한 설명 등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척추 수술환자를 대상으로 한 Lim(2002)의 연구결과에서 퇴원 시 간호 요구가 가장 높았던 '귀가 후 자기 관리 방법 설명'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척추 수술 후 약 2개월간의 안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올바른 자세, 운동, 목욕, 보조기 착용 등 많은 부분에서 귀가 후 시행해야

할 변화가 많음을 대상자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치료·중재적 영역에서 환자가 주로 원하는 간호요구는 퇴원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의 증상을 알아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퇴원 시 발생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의례적인 설명보다는 환자의 교육 및 연령 수준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사회·심리적 영역에서는 회복에 필요한 가족의 지지 및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높게 나타난 결과, 환자들이 퇴원 후 가정에서 가족으로부터 돌봄과 지지를 받고자 하는 요구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이다. 따라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퇴원 교육은 물론 가족들이 척추수술 환자들을 가정에서 지지하고 돌보는 방법에 대한 가족 및 돌봄의 제공자에 대한 교육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짐이 바람직하겠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간호사들이 척추수술 환자들에게 간호 제공시 수술 전, 수술 후, 퇴원 시의 각 시기에 따라 환자 개인의 간호요구도에 적합한 간호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척추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가 제공받기 원하는 간호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척추 수술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가 인지하는 환자의 요구를 수술 전, 수술 후, 퇴원 시에 따라 조사하여 환자와 간호사가 인지한 간호 서비스의 요구도를 알아보고 영역별로 그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간호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 수집은 2006년 9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2개월간 대전 소재 3개 종합병원 척추 센터에서 척추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 71명과 척추수술 환자를 간호하는 병동 간호사 63명을 대상으로 각 시기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도구는 Choi(2000)이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여 개발한 구조화된 설문지와 Seo(2000)와 Lim(2002)의 도구를 참조하여 수정·보완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요구도를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고, 영역별 간호요구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여 순위를 정하였으며 환자와 간호사가 인지한 간호요구도에 대한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환자와 간호사가 인지한 간호요구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척추수술 전 간호 영역에서 환자가 인지한 간호요구도는 총 평균평점 4.05점으로 나타났고, 간호사가 인지한 간호요구도는 4.25점으로 수술 전 간호요구도에서 환자와 간호사의 인

식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수술 전 영역별 요구도 차이를 보면, 교육적 영역과 치료·중재적 영역에서 각각 간호사가 환자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순위를 살펴보면, 환자는 교육적 영역(4.35), 신체적 영역(4.13), 치료·중재적 영역(4.13), 사회·심리적 영역(3.66) 순이었고, 간호사는 교육적 영역(4.59), 치료·중재적 영역(4.38), 신체적 영역(4.27), 사회·심리적 영역(3.81) 순으로 나타났다.

- 척추수술 후 영역별 순위에서 보면 환자는 사회·심리적 영역(4.48), 치료·중재적 영역(4.38), 교육적 영역(4.29), 신체적 영역(4.16) 순이었고, 간호사는 사회·심리적 영역(4.27), 교육적 영역(4.40), 치료·중재적 영역(4.35), 신체적 영역(4.27) 순이었다.
- 퇴원 시 간호의 영역별 순위에서는 환자와 간호사 모두 교육적 영역, 치료·중재적 영역, 사회·심리적 영역, 신체적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술 전 간호요구에 대한 환자의 인식과 간호사의 인식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수행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척추수술 환자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더욱 연구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척추수술 환자와 간호사가 인지한 간호요구도는 시기별, 영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척추 수술 환자의 간호요구도를 조사하여 변화하는 간호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간호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 척추 수술 환자의 사례가 충분하게 조사되지 못하여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충분한 사례를 통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 본 연구 결과를 실무에서 환자 간호와 간호사 교육 및 간호 질 향상 전략으로 사용할 것을 제언한다.
- 척추 수술 환자의 간호요구도와 실제 간호 경험만족도를 수술 전, 수술 후, 퇴원 시로 나누어 실시한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 다른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와의 간호요구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 Atkins, P. M., Marshall, B. S., & Javalgi, R. G. (1996). Happy employees lead to loyal patient. *J Health Care Mark, 16*(4), 14-23.

- Blank, J. J., Clark, L., Longman, A. J., & Atwood, J. R. (1989). Perceived home care needs of cancer patients and their caregivers, *Cancer Nurs*, 12(2), 78-84.
- Choi, H. G. (1993). *Analytical research on nursing needs of the operative patients for stomach canc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 Choi, M. K. (2000). *A study on nursing and nursing needs of surgery patients in a general hospit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imhae.
- Choi, W. H. (1999). *Preoperative nursing needs of patients with day surge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 Collins, V. J. (1991). *Principles of anesthesiology* (2nd ed). Philadelphia: Lea & Febiger.
- Han, K. R. (1995). *A study of mothers' and nurses' perception of the nursing needs of women experiencing premature lab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03). *A government report on spinal surgery*. Seoul: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press.
- Hong, S. H. (2000). *Perceptual difference between patients and nurses on the level of the educational provision preope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Jeon, H. R., & Park, J. S. (2007). A survey of knowledge of cardiac rehabilitation and the level of educational need of patients with coronary artery disease. *Clin Nurs Res*, 13(1), 51-63.
- Jung, J. S. (1992). *A study on degree of perception in clinical basic nursing needs of patients and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Jung, J. Y. (2003). *A study on the patient need and nursing care satisfaction of orthopaedic patients during the perioperative peri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 Kang, H. K. (1998). *A study on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of pre-operational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Kang, I. O., & Suh, S. R. (2006). The present condition and trend of spinal surgery in Korea. *Health Insurance Forum*, 5(2), 116-139
- Kim, E. K., Chae, S. O., Kwon, K. S., Kim, Y. J., Hong, M. H., Kim, M. H., Kim, N. S., & Lee, K. E. (2002). A study on nursing needs of patients in the recovery room. *J Korean Acad Fundam Nurs*, 9(1), 86-100.
- Kim, H. S., & Won, J. S. (2004). Comparison of nursing needs as perceived by admitted patients and nurses in a general hospital. *J Korean Acad Fundam Nurs*, 11(3), 299-308.
- Kim, M. S. (2002). *A comparison between perception of patient and nurse on nursing need of admission patient (stroke patient and nur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Daejeon.
- Koo, H. Y. (2002). The educational needs of families with respiratory infected children and the degree of nurses' educational performances perceived by families. *Korean J Child Health Nurs*, 8(3), 281-290.
- Kwon, I. S., & Eun, Y. (1998). Nurse's perception in the homecare needs of cancer patient.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28(3), 602-615.
- Lee, H. J. (2005). *The degree of importance and performance on nursing care needs of RICU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Lee, J. K., & Lee, M. S. (2003). Discharge nursing needs of patients having surgery with gastric cancer. *J Korean Acad Adult Nurs*, 15(1), 22-32.
- Lim, S. Y. (2002). *A Study on spine surgery patients' nursing needs and experienc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Nam, S. M. (2000). *A study on needs of the spinal anesthesia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03). *2002 annual report of health insurance statistics*. Seoul: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ress.
- Park, I. S., Moon, Y. S., Choi, E. S., Lee, K. S., & Chung, K. S. (1994).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patients, nurses, and doctors about the educational needs and degree of providing education. *Chungnam Medical Journal*, 21(2), 347-360.
- Seo, B. H. (2000). *A study on degree of need and satisfaction of nursing care of patient admitted in a general hospit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Shin, H. J. (1999). *Analysis of nursing needs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care for patients at ambulatory surgery cen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Yang, Y., Ju, H., Lim, K., Park, Y., Son, I., & Lee, E. (2006). Nursing needs and satisfaction with medications in patients admitted to hospital. *J Korean Acad Fundam Nurs*, 13(1), 15-23.
- Yoon, K. B., Kim, C., Choi, R., & Ihn, B. M. (1991). Postspinal headache and it's treatment. *Korean J Anesthesiol*, 24(3), 623-627.

Comparison of Perceived Nursing Needs between Spinal Surgery Patients and Nurses Caring for Them

Kim, Eun-Kyung¹⁾ · Eom, Mi-Ran²⁾ · Jung, Ji-Young³⁾

1)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Nursing, Eulji University

2)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Nursing, Eulji University

3) Nurse, Department of Nursing, Eulji University Hospital

Purpose: The purpose of study was to compare perceived nursing needs between patients having spinal surgery and the nurses caring for them.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from three general hospitals, 71 patients who were having spinal surgery and 63 nurses.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8 to November 17, 2006. Frequencies, mean, and t-test with the SPSS PC 14.0 program were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Results:** The score for perceived nursing needs during pre-op car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patients and nurses ($t = -2.515$, $p = .013$). The perceived nursing need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scores of perceived nursing needs at post-op or discharge. **Conclusion:** The results provide primary data to improve the quality of nursing care, plan, and implement appropriate nursing care for patients undergoing spinal surgery.

Key words : Nurse, Patient, Needs, Spine, Surgery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Eom, Mi-Ran

School of Nursing, Eulji University

143-5, Yongdu-2 dong, Jung-gu, Daejeon 301-832, Korea

Tel: 82-42-259-1712 Fax: 82-42-259-1709 E-mail: miran@eulji.ac.kr